



9월 실업률, 44개월 만에 8% 하회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0월 5일 미 노동부는 9월 실업률이 7.8%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는데, 이는 2009년 1월 이후 4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.

-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2월 이후 43개월 연속으로 8%대를 상회 하였는데, 2009년 10월 10.8%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 10월 9.0% 밑으로 하락하였으며, 2012년에는 8.1%에서 8.3% 수준을 유지하였음.
- 또한 노동부는 9월 신규일자리 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상응하는 11만 4천 개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7월과 8월의 신규일자리수를 각각 18만 1천 개, 14만 2천 개로 대폭 상향조정함.
- 9월 실업률의 큰 폭 하락은 구직 포기자 증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, 2012년 봄부터 시작된 고용시장 둔화세가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음.

■ 실업률 하락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측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공화당 지지자인 GE의 전 CEO 잭 웰치가 실업률 데이터의 조작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킴.

-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실업률이 8% 아래로 하락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, 9월 실업률이 8% 아래로 하락하면서 설득력을 잃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실업률임을 강조함.
- 9월 실업률 발표 직후 GE의 전 CEO 잭 웰치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실업률 데이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으며, 오바마 행정부와 노동부는 웰치의 주장을 전면 부인함.
- 한편, 롬니 측은 실업률 하락은 지난 몇 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며, 이를 감안한 실제 실업률은 11%에 가까울 것이라고 반격함.

(LA Times 등, 10/6)